

예산절감 좋지만 과도한 입찰제한 풀어 지역업체 배려해야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3> 광주U대회 성공 개최

지역경제 효과 극대화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추진중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 U대회)가 자칫 ‘저비용·저효율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가 청렴성 확보를 명분으로 500만원 이상 입찰부터 전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로 바꾸는 바람에 경쟁력이 약한 지역업체의 낙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경기장 등 각종 시설물도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빌려쓰는 방식으로 전환해 리모델링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마저 미미하다는 게 지역업체의 하소연이다.

반면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십명의 직원을 이천 U대회 개최지인 러시아 카잔으로 연수 등을 보낸 뒤 정작 다음 인사 때 시 분청으로 되돌려 보내는 ‘예산 낭비성’ 운영을 하는가 하면 대회 후엔 업체를 사실상 압박해 수천만원대의 물품을 받아낸 뒤 직원들이 나눠갖는 등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광주와 전남·북에서 개최되는 광주 U대회를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치러내기 위해 경기장 신축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U대회 38개 경기장과 32개 훈련시설 등 70개 경기시설 중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테니스장 등 4개만 새로 신축하고, 나머지는 광주와 전남·북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을 최소 비용으로 개보수

500만원 이상 공개 입찰에 지역업체 낙찰 기대 못미쳐

대회 목표 예산절감에 집중 저비용 저효율 대회 전략 우려

해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신축경기장 낙찰 차액과 양궁장 위치 변경으로 514억원을 비롯한 개보수공사 640억원, 하프 마라톤 코스 51억원, 진입도로 개설 260억원 등 모두 1427억원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애초 정부 승인액 4683억원의 31%에 이른다.

지역업체에서는 이 같은 광주 U대회 조직위의 예산절감 조치에 일부 동의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회 개최의 목표가 예산절감에만 집중되면서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삭감하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저비용 저효율’ 대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입찰 방식도 입찰에 오르지 못한다.

광주시의 입찰 규정에 따르면 물품 구매는 3억3000만원 이상부터 전국 입찰을 하게 돼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견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 U대회 조직위측은 자체적으로 500만원 이상부터 전국 입찰을 시행해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체육시설지구내 조성중인 국제테니스장이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테니스장은 연면적 2만168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국제공인기준에 적합한 메인코트 1면(3230석), 소코트 1면(650석), 서브코트 8면으로 조성된다.

광주 U대회 조직위 내부의 방만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U대회 개최지인 러시아 카잔에 직원 32명을 보내 3~17일간 읍저 프로그램 경험토록 하는가 하면 대회기 인수 업무 등을 수행·경험토록 했으나, 현재 11명만 조직위에 남아 근무 중이다. 나머지 21명은 광주시 등 이천 조

직으로 복귀해 경험은커녕 1억여원에 이르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직위는 또 대회 후원 업체의 협찬 물품과 다양한 대회 홍보물품 등을 직원들이 나눠쓰고 사적으로 사용해도 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광주 U대회 조직위는 후원(스폰서)업체로부터 점퍼 300여

벌(5000여만원 상당)을 협찬받아 직원들끼리 나눠 입었다.

조직위의 한 직원은 “직원들이 동종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복이 없어 후원업체에 수차례 부탁해 겨우 직원당 1벌씩 점퍼를 협찬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며 되레 반문했다.

이와 함께 조직위 일부 직원들은 조직위

에서 대회 홍보를 위해 만든 마스코트 인형, 다기능 USB, 볼펜, 넥타이, 스카프 등 다양한 홍보 기념품을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회 조직위는 기념품 제작과 관련한 예산과 사용처 등의 정보공개 요청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U대회 성화 봉송주자 2960명 모집

전국민 대상 메인·보조주자...내달 3~13일 접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26일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주U대회 성화 봉송 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원은 메인주자 440명, 보조주자 2520명 등 총 2960명이다.

자격은 15세 이상(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으로 17개 구간(200~300m)을 봉송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된다.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3월3일 성화봉송 주자를 발표하며, 4~5월 중 주자교육과 예행연습을 거쳐 성화봉송에 투입된다. 성화봉송 참여 주자에게는 유니폼, 운동화, 참여증서 등을 지급한다. 광주U대회의 국내 성화 봉송 노선은 주자 봉송 131km, 차량 및 항공봉송 3569km 등 총 3700km에 달한다.

성화는 세계대학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5월 26일 제화된다. 국내에서는 6월2일 무등산국립공원 장봉재에서 불을 밝힌 뒤 6월3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합화(合火)된다. 합화된 성화는 6월 4일부터 22일간 전국 17개 시·도와 60여개 시·군·구, 10개 주요 대학을 돈 뒤 대회 개막일인 7월 3일 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특히 국내 성화 봉송 노선은 ‘빛 광(光)’자 형상으로 구성돼, 대회의 이념인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의 의미를 더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 U대회 조직위에서 추진 중인 북한 성화 봉송이 실현될 경우 성화 봉송일정은 다소 수정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창조경제센터 오늘 출범...현대차 투자규모 삼성 넘어설까

정몽구회장·정부 관계자 등 참석 광주과기원서 개소식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대규모 투자 계획 밝힐 듯

현대차그룹과 묶여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가 27일 출범한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그랜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이 대구에서 내놓은 900억원대의 투자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오동동 광주과학기술원 내 창조센터 수소차 연구 지원 기술상용화 지원센터(GTI)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

장현 광주시장과 정부 최고위 관계자, 미래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서구 양동 KDB생명 빌딩 16층에 메인 창조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아이디어 발굴지원팀과 창업지원팀을 신설·운영중이다.

정몽구 회장은 이날 광주지역에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오는 2018년까지

81조원을 투자해 완성차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로, 광주시의 민선 6기 역점사업인 자동차산업밸리 육성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또한 두 차례의 공모 끝에 광주 창조센터장으로 선출된 유기호(55) 전 현대·기아차 이사로도 현대차그룹과 광주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 센터장은 현대차에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연료전지 개발 분야 등을 담당해온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센터장 선출과 조직구성이 이미 마무리된 만큼 현대차그룹과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의 모든 혁신역량을 집중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출범하게 되며, 삼성은 대구 창조센터에서 9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비롯한 섬유산업 지원과 SK는 518억원의 규모의 투자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전남도와 GS그룹이 추진중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 5월이 출범 예정이다.

각 지역별 창조센터는 미래부 등 관계 부처가 센터 설립을 주도하되 센터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은 민간 부분이 맡게 된다. 특히 현대차와 삼성, LG, SK, 효성 등 15개 참여 기업은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멘토링·기술공유·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중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휴무휴)

상당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여워 1층)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수원동 196 우리빌(이커리 2층)	062)955-5230
세정투어 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설날 연휴 마카오 전세기

항공 에어 마카오 (NX 항공)
출발일 2월 19일 (목), 2월 22일 (일)
일 정 2박 4일 일정

04902300 4박5일 마카오/홍콩 4일 총 상품가 1,170,000원~ 유류할증료 71,000원 포함 선박비용 포함 소호관광+피크닉+심선소 호텔 4성급 호텔 2개 특선 차차로 배차시간 20분 / 세프터 포함(연휴) *복: 2인 1실(2인1실)	04902300 4박5일 마카오/심선/홍콩 4일 총 상품가 1,170,000원~ 유류할증료 71,000원 포함 선박비용 포함 소호관광+피크닉+심선소 호텔 4성급 호텔 2개 특선 차차로 배차시간 20분 / 세프터 포함(연휴) *복: 2인 1실(2인1실)
--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여행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TV쇼핑
하니문 필수! 스냅촬영 2시간 공동 포함!

로마 vs 피렌체 vs 베니스
3도시 중 한 곳을 선택 스냅촬영!

이태리 VS 발리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이태리에서 의미있는 여행? 발리를 대표하는 럭셔리 포시즌 풀빌라에서 여유있는 삶? 명품해 간직된 하니문, 어느 곳을 선택하시든 두 분야 주인공입니다.】

하나TV쇼핑 이태리 & 발리하니문 공동특전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5박7일	발리 4박6일 - 포시즌 풀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혜택 1 롯데상권권 5만원권 + 신리연세점 최대 12만원 상당 쿠폰 → 17만원 상당의 면세점 혜택 혜택 2 스냅촬영 2시간 포함 혜택 3 기본1%마일 + 커피값 20만 마일리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상품가 2,456,800원~ 편지여행 > 가이드 > 기사량에 포함 선물 경비 있음 출발일: 2월~ ① 8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액자 제공 ② 선티쿠치의 역 근처 분식 1박 제공 ③ 와인 1박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상품가 2,047,900원~ 편지여행 > 가이드 > 기사량에 포함 선물 경비 있음 출발일: 2월~ ① 총 4번의 스카 or 마사지 포함 ② 1만원 상당의 코스프레 및 용+가제(가제) 4종 4종 ③ 24인원 핸드케이지 증정

*관리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출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만접수 T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